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7호 [루게 제25776호] 주제 106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백년속적미제와의최후결사전에서 사회주의강대국의위용을힘있게펼치자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집회 진행

위대한 별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승  
리봉을 향한 주체조  
선의 힘찬 대진군을  
가르막아보려고 피를  
쏟고 남기는 승상이  
미제를 죽창쳐버리고  
야만 천만군민의 열  
정의 함성이 온 나라  
를 진감하고있다.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의 생명이며 삶  
과 행복의 전무인  
최고존엄과 우리  
국가의 존제자재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력대 가장 포악한  
미치광이 나발까지  
시습없이 꿰고있는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백년, 천년속  
적이며 불구대천의  
적진지천후이다.

은 세상을 향해  
제 거품을 물고 내  
뱀은 이 천인공노  
할 망발은 일심단  
결과 자력경쟁의  
위력으로 승승장구  
하는 주체조선에  
대하여 너무도 모  
르는 무지의 표현  
이며 우리 공화국  
의 무진막강한 위  
력앞에 질겁한 양  
키무리들의 가소로  
운 께기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  
에 걸한 전체 일군들  
과 당원들과 근로자  
들은 우리 당의 위대한  
명진로선이야말로 절대불변의 진리임을  
심장마다에 다스려 새겨안으며 남강도  
미제의 최후결사전에 신약같이 떨쳐나  
섰다.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  
룩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  
각, 성, 중앙기관집회가 23일 인민문화공  
전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장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  
하여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사  
수하기 위한 전진항전에서 백승을 펼쳐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새하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집  
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집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  
로 사수하자!》, 《반미대결전에 총결기  
하여 미제를 무자비하게 정벌하고 최후  
승리를 이룩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  
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양형섭동지,  
로두철동지, 노광철동지를 비롯한 국가  
의 책임일군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는 《천만이 총부족 되리라》노래주  
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박봉주동지가  
낭독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선원철 내각 정치국 국장은 지금 내각  
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전체 일군들은  
남강도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천적  
배의 보복의지로 심장을 끓이고있다고 말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표하신 성명은 미국이라는 피악의 땅  
덩이러를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  
버리려는 백두산호랑이의 단호한 최후  
통첩이며 침략과 전쟁의 비수인 승상이  
미제와 총결사전을 벌려 쌓고교할인

천주의 환을 기어이 풀고야말 천만군민  
의 신념과 의지의 환화산같은 분출이라  
고 말하였다.

그는 만약 미제가 이 땅에 전쟁의 불구  
름을 끌어온다면 전진항전으로 침략자, 도  
발자들을 가장 처절하게, 가장 무자비하게  
정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를 따르는 길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심장같이 모아두고 반미결  
사전에 더욱 파강히 떨쳐나설레 대하여 그  
는 언급하였다.

그는 각급 당조직들이 당의 유일적  
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불패의  
일심단결과 자력경쟁의 위력, 최강의 군  
력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는 신념과 투철한 만세계급의식으로 정  
무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  
조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를 총직하게 받들어 일군들과 당원들  
과 근로자들을 천진지천후 미제의 최후  
결사전에도 총결기시킴을 굳게 결의하  
였다.

김민수 전력공업상은 지금 우리 군데  
와 인민이 천하의 경제소굴인 미국을  
이 행성우에서 영영 끌어버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웨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  
였다.

연설자는 남강도 미제가 신성하고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력대 가장 포  
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그 망발의  
대가를 천배로 받아내자는것이 우  
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라고 말  
하였다.

그는 전력공업상의 전체 정부원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천금단검의 생새, 방편백이 되어 결사공위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  
는것을 뼈에 새기고 당의 명진로선과 자력  
경쟁의 기치높이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전력생산목표  
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총배진할대  
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악의 제국, 침략의 원흉인  
미제의 아성을 불마질려는 심정으로  
나라의 핵무력강화와 경제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을 팡팡 생  
산보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명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  
장은 미친 불량배의 히스테리적인 쾰번  
은 세계앞에 미국이야말로 불장난을 즐  
기는 불망나니, 광대국가임을 스스로  
적과라하게 드러내놓은것이라고 규탄하  
였다.

미국의 전쟁머지판이들이 머는 잡소  
리를 하지 못하게, 감히 우리앞에서 제  
멋대로 펼쳐대지 못하게 정의의 핵주먹  
으로 단호히 쳐갈기며 천만이 총부족되  
여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우리  
의 장쾌한 승리로 결속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체  
일군들이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데도  
합없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굳게  
믿고 하늘땅 끝까지 따르는 열혈충신이  
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화국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는데  
총력을 집중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우월성  
과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당의 사  
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

나설레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과학기술승진사상을 높이  
발굴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  
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빈발  
적으로 이룩함으로써 미제의 아만적인  
경제책동에 투구멍을 내고 주체조선의  
자력경쟁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주체과학기술의 힘찬성과들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며 우리 조국을 천하  
제일의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어나갈  
것을 표명하였다.

집회는 《총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집회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명도따라 자력경쟁의 대고조족  
용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비하  
를 일으키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  
전진항전대오의 기수로서의 열에올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차던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갈것이라고 그는 말  
하였다.

연설자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국가사회제도  
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법제정사업과 입부생  
활에 대한 조직과 지  
도를 보다 강화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  
회 결정사항을 위한  
전진총투쟁을 위력  
으로 끈끈히 담보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  
하였다.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은 미국의 미  
친개, 광대무리들은  
천추대돌 두고  
기어코 멸망시켜야  
할 천하의 악귀무  
리들이라고 하면서  
치솟는 격분으로  
말하였다.

그는 이 행성에서  
가장 흑독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세계최  
강의 지위에 우뚝 올라  
선 우리 공화국이 불  
장난을 즐기는 정신  
병자들의 광태에 끄  
떡이나 하리라고 생  
각한다면 그것은 망  
상중의 망상이고 오  
산중의 오산이라고  
말하였다.

국가과학원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  
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억척같  
이 뭉쳐 미제의 마지  
막승리를 결단코 쫓  
아버리기 위한 전진  
항전에 힘있게 떨쳐

나설레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과학기술승진사상을 높이  
발굴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  
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빈발  
적으로 이룩함으로써 미제의 아만적인  
경제책동에 투구멍을 내고 주체조선의  
자력경쟁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주체과학기술의 힘찬성과들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며 우리 조국을 천하  
제일의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어나갈  
것을 표명하였다.

집회는 《총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집회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명도따라 자력경쟁의 대고조족  
용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비하  
를 일으키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  
전진항전대오의 기수로서의 열에올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차던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영웅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세계최악의 깡패국가 미국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자

##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존엄높은 강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치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감히 없애보겠다고 미쳐달라는 흉악한 양키부리들에 대한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열적의 의지가 새지게 분출되고있다. 미제식인총부리들의 정신병적인 광태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 집요하게 추구해온 대조선압살야망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은것으로서 인류사상 입적기 있어본적이 없는 최악의 흑대형국가데모처럼, 전대미문의 처벌러는 만인불적인행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생명에 걸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존엄높은 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에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물 한 미천개부리를 영웅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불로 다스리며 지력정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평마루를 향한 총진군포성을 더욱 높이 울려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양시군중집회가 23일에 진행되었다. 집회장소인 김일성광장은 조선인민에게 형언할수 없는 불행과 재난만을 들이운것도 모자라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쫓아낸 남강도 미제를 이 행성에서 송두리째 몰아내야할 시리아같은 중오와 원수적열의 기상을 안고 모여온 10여만 각계층 군중들로 차넘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집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미제를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주체의 해보침을 역세계 물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우리의 앞길은 막지 못한다!》 등의 구호관불과 선전화불이 집회장에 세워져있었으며 기발계양대들에는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집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수길동지와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집회는 《천만이 총폭탄 피리라》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의 생명을 김수길동지가 광복하였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최희림 평양시당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금 평양시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열적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켈켈 끓이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평양시당위원회의 일꾼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비는 미제의 무모한 폭동에 대처하여 수명옹위를 짓저리에 놓고 모든 당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수명사수, 수명보위의 역적성세로 전면시립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을 투철한 반미계급의식과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켜 반미

대결전에 총결기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화선식으로, 전투적으로 밀려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지력정생제일주의기치높이 적들의 악랄한 제제압살소동을 불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성만행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평양왕신, 평양속도를 창조해나가고도록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백두에서 추켜든 성스러운 불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며 남강도 미제를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완전파멸》라는 천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시방이나발을 불어낸 트럼프의 광

태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추후도 용납할수 없는 최대의 모욕이며 로골적인 선전포고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트럼프놈의 단발마적인 악담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한 제제와 압박속에서도 불패의 군력을 역적감이 다져온 병적의 길이 절대적으로 옹오며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명명백백히 확증해주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온 세계가 봉인하는것처럼 백두의 천출명장의 무리에 천만군민이 혈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반서우에 솟아난 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불가항력적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3 면 으 로 계 속

# 백년속적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에서 사회주의강대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자

##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집회 진행



# 영웅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세계최악의 깡패국가 미국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자

##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 2 번 에서 계속

그는 시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이 당중앙위원회가 지리잡고있는 수도의 정권기관 일꾼들에게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지니고 평양시를 수명결사옹위의 결성체, 혁명의 보루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의 무적마치로 적들의 악랄한 전성도발책동과 제재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리며 수도건설과 시민들의 생활보장, 경제발전과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해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일꾼들이 건강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최선적으로 박력있게 해나가는 데오의 기수, 야전형의 지휘관이 되며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 심부름꾼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수명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만장약하고 수도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눈부신 비약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선 수도시민의 영예와 긍지를 더욱 높이 면적나

같이 대하여 강조하였다.

리일배 로동적위군 지휘관은 세기를 이어 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중대결심을 떠맡는 심장마다에 발아난 수도의 로동적위군 부대들이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위한 최후공격전에 파카히 진입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던 로동자도, 황금이삭을 거두어들이던 협동농민도, 과학의 첨단요새를 돌파해나기던 지식인들도 한손에는 마지와 낫과 붓을, 다른 한손에는 총대를 틀어쥐고 악의 총본산, 제국주의의 야성을 단숨에 짓무게버릴 필적의 기세를 폭발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로동적위군 부대들이 당중앙위원회 드라클을 지키는 전초병답게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더욱 높이며 사랑하는 우리 마을과 일터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오늘의 소왕정유격구로 만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매일 당장 전쟁이 일어날다고 하여도 오늘날 12시까지의 생산과 건설을 계속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의 거세한 열성을 일으켜 적들의 전쟁도발책동과 제재책동을 불거름으로 만들어버릴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시인의 전제 로동적위군 전투원들이 악마의 제국 미국을 이 행성에서 송두리채 들어낼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명만 내리시면 혁명의 불은 용상으로 침략의 무리들을 모조리 불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박성철은 수도의 전체 청년전위들의 가슴가슴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수천만 우리 인민을 멸살시키했다고 제쳐낸 미제수렁이무리에게 어떤 비참한 말로가 차려지는가를 만천하에 보여줄 결사의 보복의지로 세차게 높이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그 어떤 천지동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담대한 태방이 담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성명은 우리

수도청년들을 결사전으로 부르는 공격명령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청년동맹조직들이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헌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어 결사옹위하는 제일결사대,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후부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기어이 증지높은 전승애대가 되려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열망이라고 하면서 모든 청년들이 1850년대의 영웅전사들처럼 오늘의 반미대결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파강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감으로써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들을 불거름으로 만들어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명예를 걸고 미국놈들을 지구상에서 제도없이 쓸어버리기 위한 성전의 열 앞장에서 현주적멸의 돌격로를 열어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설들이 진행되는 동안 집회장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를 총정도로 받들어 원수들의 전대미문의 반공화국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만드시 이룩해나갈 신념의 구호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집회는 《총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집회에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족단이 되자!》,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을 자력갱생의 대고조폭동으로 단호히 쳐감기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췌어진 프랑카드를 들고 위주의 힘있는 선봉에 발을 맞추어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한을 풀수 있는 길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명》이요, 《완전과피》요 하며 악담질을 하는 천하무도한 미국장제무리들을 세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기세에 총만된 시위참가자들의 함성이 광장에 메아리쳤다.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대오마다에는 위대한 천출명장이 전투에 계시오 무적막강한 국가개혁과 세계의 유일무이한 입심단결이 있기에 미제가 세아무리 말악하여도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강용한 조선인민인것이 라는 불굴의 기상이 새차게 나타났다.

전체 참가자들은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당중앙의 명도를 총정으로 받들어온것처럼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령에 박차를 가하여 만리대교조진군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갈 신심과 학원에 넘쳐있었다.

평양시군중집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붙어 자력갱생의 강위력한 보검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대전군의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울림으로써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우리 인민의 백철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